

# “사주 위해 전주 시내버스 결행 강요”

### 전북버스지부 “충전소 1곳만 이용... 제일·성진여객 사주 고발해야”... 시 “근로자도 문제”

지난 1년간 전북 전주 시내버스 392대 중 90여 대가 단 1곳의 충전소만 이용하면서 결행이 속출, 이와 관련된 민원이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는 11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LNG충전소의 이익을 위해 버스 노동자들에게 불법 결행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전북버스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이상 제일여객 시내버스 90여 대가 사주 가족 소유의 충전소만 이용해야 하면서 이로 인해 수천 건의 불법 결행이 이뤄졌다”며 “이를 강요할 때에도 버스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기간 동안 결행과 관련된 민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가 조사한 시내버스 민원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5년 711건, 2016년 1693건, 2017년 243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결행과 관련된 민원은 2015년 89건, 2016년 287건, 2017년 52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자 전주시는 사측에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한 공문을 보냈고, 사측은 “지난 5월 오전 10시부터 모든 충전소에서 가스충전 이 가능하다고 며 근로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돌렸다.

전북버스지부는 또 “500억원 대의 허위 채권 설정과 배임·횡령으로 제

배는 불리면서도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은 항시적으로 체불했다”며 “피압박된 노동의 대가로 차곡차곡 쌓여있어야 할 퇴직급여충당금마저 온데간데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책임은 전주 시내버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전주시에게 있다”면서 “전주시는 지급이라도 제일·성진여객 사주의 불법 의혹에 나서서 검찰에 고발해야 하며, 사주의 면허권 환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버스 기사들이 하루에 2번 아침과 오후에 가스충전을 하면 되는데 아침에 일찍 나와야 한다는 부담감과 이에 따른 근무 연장으로 인한 문제가 겹치면서 버스 결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달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사측에 공문을 보내는 한편 5일간 전체조사를 벌여 지난달 20일부터 27일 사이 결행이 19차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결행 내역을 보면 결행을 한 근로자들이 같은 경우도 있어 이는 사측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문제도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번 달부터는 가스 충전소 정상화에 따라 결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시청은 지난 5월 500억 원 대의 허위채권설정과 임금체불 의혹이 있는 제일·성진 여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확보한 서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 ‘봄맞이 전주푸드 직거래 이동판매’

### 12일까지 시청 노송광장

봄철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인 전주푸드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열렸다.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센터장 강성욱)는 11일과 12일 이틀간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2018년 봄맞이 전주푸드 직거래 이동판매’를 연다.

이들간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직거래 장터에서는 △달래, 냉이, 머위, 두릅 등 봄나물류 △방울토마토,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등 햇채소류 △통밀, 건육수수, 귀리, 녹두 등 전주푸드 잡곡류 등이 시중보다 최대 30%~10%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특히, 상추와 시금치, 부추 등 업체류 등의 경우 당일 수확한 싱싱한 농산물만 엄선해 판매된다.

이와 함께, 이번 직거래 장터에

서는 현재 전주푸드 직매장에서 판매중인 전주푸드 집반찬을 맛볼 수 있는 시식행사도 진행된다.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는 이번 시식 행사와 함께 즉석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다 다양한 반찬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올해를 안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주푸드 대도약기로 정하고, 전주푸드 친환경농산물 확대생산을 위한 생산자회 구성을 마친 상태다.

센터는 향후 △차세대안전성인증 시스템 구축 △국민연공금단 등 공공기관 수요처 확대 등을 중심으로 전주푸드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총매출량 증대로 농가소득 향상에 힘을 기울인다.

동시에, 현재 전주지역 130여개 초·중·고에 공급중인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 JICA, ‘스마트창업터’ 사업 성과평가 최우수 주관기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정부로부터 ICT기반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을 돕기 위한 실습교육과 지원을 잘 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전주시는 진흥원이 ‘2017 스마트창업터 사업’ 성과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창업터’ 사업은 예비창업자와 3년 미만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웹과 앱, 콘텐츠 등 ICT기반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습교육 및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흥원은 지난해 이 사업에 사업화 지원 12팀이 선정돼 전국 20개 기관 중 최다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창업교육부터 성장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매출 약 5억원, 신규 고용 9명, 지식재산권 27개 창출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진흥원은 지난달 1차 교육생 20개 팀을 대상으로 창업실습교육을 진행했으며, 지난 10일에는 시장검증 지원 팀 11개 팀을 선정해 팀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했다. 진흥원은 향후 최종평가를 통해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진흥원은 2018년도 스마트창업터 창업실습교육 참여할 2차 교육생을 오는 30일까지 스마트창업터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접수 받는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는 11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주형 동네복지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 구성체인 ‘제7기 전주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 민·관 전주형 동네복지 정착 앞당긴다

### 전주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26명 위촉

전주형 동네복지 정착을 돕는 제7기 전주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가 출범했다.

전주시는 11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주형 동네복지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 구성체인 ‘제7기 전주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심의와 사회보장급여 제공,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새롭게 위촉된 전주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대표위원은 총 26명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시설·기관의 대표, 학계·복지·보건·의료·경찰·공익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2017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 평가를 심의했다. 지난해 중점추진사업으로는 △시립중심의 복지공동체 형성 △안

전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 △노동적·적극적 복지시스템 구축 등으로 목표 대비 95% 이상을 달성했다.

이와 함께, 이날 위원들은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장복석 이양재노인종합센터장이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전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라 전주시장이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

또한, 참석위원들은 △대표협의체에 분과형태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항후 발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대

전주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소가 없는 등산로와 천변 수문 등에 국가지점번호 안내표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국가지점번호는 소방·경찰·산림청 등 기관별로 각각 사용하던 위치 표시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서 산·하천 등 건물에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도로의 통일된 위치 안내 표시 방법으로, 긴급 구조상황 발생시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건지산 등산로변 58개소와 수문 9개소 등 총 67곳에 등급 상

황 발생시 긴급 구조 위치 파악을 돕는 국가지점번호 안내표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현지조사로 설치위치를 정하고 위성측량기를 통해 좌표를 취득 후,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새로 설치된 국가지점번호는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시에서 관리중인 국가지점번호시스템(KAIS)에 등록되고, 경찰·소방·산림청 등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정보와도 공유된다.

시는 향후에도 완산리봉, 도당산 등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 안내표지 설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 전주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중 여성 타살 흔적

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중 여성에게서 타살 흔적이 발견됐다.

11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10분께 전주 인후동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A(50·여)씨에게서 타살 흔적이 나왔다.

검시를 통해 A씨의 목에서 찢린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현장에서 A씨는 숨진 채 쓰러져 있었고, B(37)씨는 목을 매단 채 숨겨져 있었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

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행적을 추적하던 경찰은 B씨의 원룸에서 이들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3자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남성이 여성을 살해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면서도 “정확한 사인은 오늘 진행한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주변인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허인회(1963. 9. 4.생 2018. 2. 24.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정성화 판사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체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8년 단276 상속한정승인 판사 정성화  
▶ 피상속인: 망 허인회(1963. 9. 4.생 2018. 2. 24. 사망)  
▶ 최후주소: 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산동길 116  
▶ 공고인: 허지윤  
▶ 상속한정승인수리일: 2018. 3. 20.  
▶ 공고기간: 2018. 4. 12. ~ 2018. 6. 11.  
▶ 주소: (청구인 허지윤의 송달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발이봉남로 4번길 3, B02호 (수내동 98-7번지 B02호) 010-9052-1121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